

2013 대수능 특집 액기스!!!

1. 6, 9평 다시보기

1-1) 신유형에 주목하라!

-6월 평가원 20번 문제

The part which looks to the north is lower than (A) it/that which looks to the south.

→(A)번 보기는 대명사 it과 that의 구분을 묻고 있습니다. (B)나 (C)에 비해 다소 어려웠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여기서 어려웠다는 말은 출제 빈도상 (A)에 나온 조합이 그간 기출 문제에서 자주 등장하지 않아 여러분이 낯설을 느꼈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. it과 that 모두 앞에 나온 명사를 대신할 때 쓰이죠. 그런데 비교구문에서 쓸 수 있으면서 후치수식을 받을 수 있는 대명사는 that입니다.(it 역시 쓰일 수 있지만 후치수식을 받을 수 없습니다.) 복수라면 those를 쓸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The part라는 단수를 대신하니까 답은 that이죠!

-9월 평가원 20번 문제

We know that the journalism program at our college was a source of (A) many/much of these firsts for you.

→기존 유형들과 달리 many와 much의 쓰임을 직접 물었습니다. many는 셀 수 있는 명사, much는 셀 수 없는 명사를 수식한다는 것만 알았다면 풀 수 있었겠죠. 이번 문제가 주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. 지금까지 오답요원으로만 출제되던 many와 much를 직접 구별하는 문제를 실제 수능에서도 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.

1-2) 반복 출제되는 유형들은 반드시 맞춰야 한다!

-6, 9월 평가원 출제된 유형 정리

문제(박스형/밑줄형)	6월 평가원	9월 평가원
(A)	it/that	many/much
(B)	was/were	동사/준동사
(C)	who/where	ing/p.p
①	조동사+have p.p	전치사+관계대명사
②	almost	대명사의 수
③	any	전치사+ing
④	지각동사+목적어+ing	that
⑤	that/what	주어-동사 수 일치

위 표는 올해 평가원 시험에 출제된 유형들을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.

6월 평가원 시험의 (A)와 9월 평가원 시험의 (A)를 제외하고는 평가원 및 각종 모의고사에서 수차례 출제된 문제입니다.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됩니다!!

2. 수능날 반드시 이렇게 하자!

하나, 쫄지 말자. 수능을 결국 멘탈 싸움이다. 침착하게 풀면 누구나 풀 수 있다.

둘, 수능에는 신유형이 없다. 누구나 알 수 있는 개념을 교묘하게 출제할 뿐. 흔들리지 말자.

셋, 수능은 객관식이다. 지우개 찬스를 적절히 써라. 6, 9평 신유형이었던 (A)번 역시 정 모르겠으면 (B), (C)를 통해 (A)번은 손도 안 대고 풀 수 있었다.

넷, 막히면 일단 넘어가라. 다시 보면 쉽게 풀린다. 지극히 당연한 사실인데 많은 학생들이 당황하여 실행에 옮기지 못 한다.

다섯, 쉬운 선지는 쉽게 넘겨라. 괜히 숨은 의미를 찾으려고 깊게 생각하면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것이다.

3. 최후의 예언

다음은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제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두 문항을 저희 교재에서 발췌한 것입니다.

1. (A), (B), (C)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As schoolchildren, we learn that different weights fall at the same speed. This simple and readily observation, first published by Galileo, (A) refuted / refuting Aristotle, who claimed that heavy things fall faster. Galileo put it in *Two New Sciences*, "I greatly doubt that Aristotle ever tested by experiment whether it be true..." We are left to wonder how people could have believed (B) that / what they were told, and for two millennia at that, without ever checking? Surely the power of evidence over authority is obvious. Even today, As a simple example, the time-honored advice for those suffering from bad backs has been bed rest. Only recently, though, (C) has / have we discovered bed rest isn't the best treatment, and isn't even particularly good compared to moderate activity.

(A)	(B)	(C)
① refuted	that	has
② refuted	what	have
③ refuted	what	has
④ refuting	that	have
⑤ refuting	what	have

-해설

(A)번은 얼핏 보기에 ing / p.p를 구분하는 문제처럼 보일 수 있지만 문장 구조상, 문장의 동사가 없기에 본동사인 refuted를 답으로 골라야 합니다. 2012학년도 9월 평가원 박스형 어법 (C)번과 유사합니다.

(B)번은 관계대명사 that과 what을 구별하는 문제입니다. 이 문장은 동사 tell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, 해석상으로 '그들이 들은 것'에서 그 '것'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빠져 있죠. 좀 유사한 말로는 4형식 동사에서 직접 목적어가 빠져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앞 문장에서는 동사

believe의 목적어가 빠져있네요. 따라서 부족한 부분이 2개일 때 쓸 수 있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을 골라야 합니다.

(C)는 주어 동사 수일치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최근 추세를 반영한 문제입니다. 또한 2012 학년도 수능 밑줄형 어법의 ①에서 사용된 도치+주어 동사 수일치 구조를 반영했습니다. 4인4 색 본교재에서도 잠깐 정리했듯 only가 이끄는 부사구에서는 도치가 일어납니다. 따라서 주어-동사의 위치가 바뀌었겠죠. 이 문장의 주어인 we에 맞추어 동사를 일치시켜주면 정답은 have가 됩니다!

정답: ②

2.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, 어법상 틀린 것은?

Think about the tasks you perform and write down the meaning that's derived from each task. Achor offers up a good exercise here. Turn a piece of paper horizontally, and on the left hand side write down a task you have to perform at work that feels devoid of meaning. Then ask ① yourself: What is the purpose of this task? What will it accomplish? Draw an arrow to the right and write the answer down. If ② what you wrote still seems unimportant, ask yourself again: What does this result lead to? keep going until you have a sense of purpose in the task you have to perform. The bottom line on this principle is that we know you can shift your prospects by ③ believing in yourself and this often requires a shift in mindset to get there. You obviously have to be aware of the fact ④ that your capabilities may not stretch as far as your beliefs - like putting on a superman cape doesn't mean you'll fly - but ⑤ build your mindset around the belief that you can stretch beyond where your mind believes you should stop today is a good idea.

-해설

①은 재귀대명사를 묻고 있네요. 재귀대명사가 옳은지 판단할 때는 해당 동사와 주어를 체크하면 되죠. 여기서는 명령문이니가 정황상 you에 대해 명령하는 거겠네요. 따라서 yourself는 맞습니다.

②는 관계대명사에 밑줄입니다.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에 밑줄이면 항상 조심! 언제든지 답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이 동사 wrote의 목적어와 동사 seems의 주어 역할 두 가지를 훌륭히 소화하고 있으니 맞는 표현이네요.

③은 by ~ing 구조가 눈에 띕니다. 실제 수능에서는 in ~ing, by ~ing, on ~ing 이 세 가지가 오답 선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. 각각 ~하는데 있어서, ~함에 따라, ~하자마자라는 뜻이죠. 정리해둡시다!

④는 the fact와 동격을 이루는 that절을 이끌고 있죠. 이처럼 that에 밑줄을 그어놓으면 that이 관계대명사, 접속사, 동격을 이루는 절 중 어떤 역할로 쓰였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!

⑤가 정답이죠. 주어 동사 찾기는 가장 기본이면서도 실제 시험 문제로 출제 시 많은 학생들을 당황하게 하는 주제입니다. 특히 최근 들어 주어 동사 찾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. ⑤처럼 중간에 수식어구가 장황하게 들어가도 결국 이 문장은 동사 is에 맞는 주어가 없습니다. 항상 주어 동사 구조 찾기를 생활화하는 습관을 들입니다!

정답: ⑤